

불황의 늪에 빠진 육계산업 '상생' 이 묘약

지난 1985년 (주)하림으로 시작된 육계 계열화사업은 단기간에 국내 양계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급속한 양계산업 성장 뒤전에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 이익분배, 농가권익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으로 논란이 잠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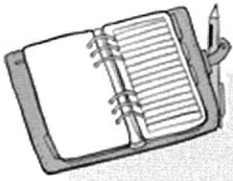
문제는 국내 양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냐다. 지난해 양계산업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생산량 증가, 수입물량 증가, 소비둔화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양계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상당했다. 필자는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위협이 없었음에도 국내 양계산업이 기지개를 펼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위 계 육 기자
농업인신문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육계산업 수익성 악화

축산업은 사료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이다.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지하는 구조를 가진



국내 축산업은 언제든지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양돈산업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곡물가격 및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역시 원가의 사료비중이 높은 육계계열화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육계산업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유례없는 곡물가격 상승과 2008년 하반기의 환율급등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원재료가격 상승은 생계시세 하락과 맞물리면서 업계의 수익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이상 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배합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 대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곡물 가격은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곡물수입에만 의존하는 국내 축산업은 '배합사료값 인상' 움직임을 막을 힘이 없다. 결국 배합사료값 인상은 육계계열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육계산업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규 계열주체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육계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대외적인 환경이라 치부하더라도 내부적인 여건변화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수익성 하락은 종계 과잉입식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만큼 과거 경우와 비슷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종계 입식을 불러온 원인을 따져봤을 때 상당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대형기업이 자금과 조직력을 앞세워 육계산업에 진출하면서 과열경쟁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들이 육계산업에 진입하기 이전인 지난 2009년까지 H사를 제외한 M사, D사의 연간 매출은 2천억원 내외에 불과했다.

신규 진출한 대형업체들은 각각 육계사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포함해 축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높은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어 도계능력은 물론 종계 및 부화설비, 사육농가 확보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행보를 이어왔다. 신규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은 지난 2009년 이후 활황으로 투자여력이 생긴 기존 육계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업계의 전반적인 종계입식 및 설비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계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H사는 정음에 1,100억원을 투자해

일일 20만수를 도계할 수 있는 도계장 가동을 시작했으며, D사는 전북 부안에 2,200억원을 투자해 부지 6만여평, 건평 23천여평에 달하는 거대 도계장을 건립 중이다.

육계산업의 최근 경쟁구도 변화는 중기적인 공급량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형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향후 전략적 선택에 따라 육계 공급 수준은 물론 육계업계 침체의 수준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영실적 악화, 업계 환경변화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했던 지난 과거와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침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과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 무리한 투자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입산 닭고기 경쟁우위 점해야

국내 육계산업의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언제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이다. 닭고기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타육류 대비 지방, 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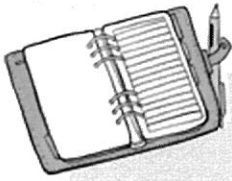
스테롤은 낮고 단백질 함유량은 높은 영양학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수요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부분육의 저변화로 소비의 간편성,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량 증가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수치로 보더라도 지난 2000년 1인당 소비량은 6.5kg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늘어 지난 2011년에는 11.2kg으로 성장했다. 특히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아직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낮기 때문에 향후 닭고기 소비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

다만, 수입산 닭고기의 수입물량 증가는 국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닭고기 수입량을 기록했던 것을 예삿일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닭강정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수입닭고기는 단기간에 골목상권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전체 수입닭고기의 66%를 차지하는 미국산 닭고기의 경우 이미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20%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브라질산, 프랑스, 태국 등 닭고기 수출국가들이 호시탐탐 국내 양계시장을 노리



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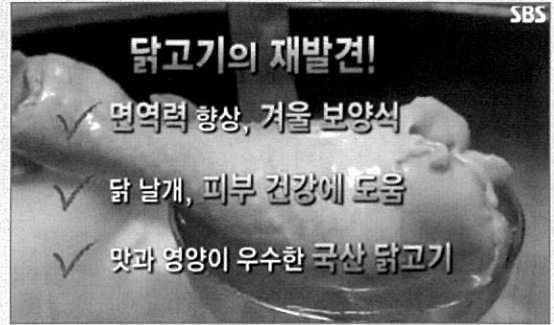
그나마 아직까지 수입냉동육이 아닌 국내 신선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아 중기적으로 수입닭고기 공급비중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자조금 활성화가 관건

육계자조금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9월 닭고기 관련 단체가 마침내 '단일대오'를 이뤘다. 자조금사업 동참에 관심을 두지 않던 (사)한국계육협회가 전격적으로 자조금사업에 동참하면서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닭고기자조금은 거출률 저조와 미미한 조성금액으로 '서자'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양계관련 단체들이 자조금사업을 통해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올해 자조금사업규모는 44억원으로 지난해와 견줘 60% 이상 신장됐고, 자조금사업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자조금사업은 특정업체 닭고기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해 전국민이 닭고기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조금사업을 통해 국내산 신선육을 적극 홍보한다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 사육농가는 사육회전수를 보장받고 계열주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계육협회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계의 불황을 자조금사업을 통해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됐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올해 그 위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계육협회,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등 자조금사업 주관단체들은 닭고기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양계산업 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모아야

국내 양계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값 인상, 수입닭고기 수입량 증가, 육계 계열업체간 과열경쟁 등 안팎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둔화 현상에 편중돼 닭고기 소비량도 급감하고 있는 암울한 실정이다.

그간 양계산업은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우스개소리를 들어왔다. 계육협회, 양계협회, 토종닭협회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상황에 협회별 각자의 주장은 힘이 실리기 힘들다. 정부 지원도 대가축이 중심이 된 반면 소가축은 '서자' 취급을 받는데도 '한 지붕 세 가족'의 역할이 컸다.

어찌됐든 자조금사업을 통해 세 가족이 한 지붕 울타리로 들어온 만큼 위기에 놓인 양계산업이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상생'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축산물보다 짧은 기간 사육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우리 육계산업 종사자들이 높아만 가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을 올린다면 닭고기 산업의 미래는 절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사업영위는 희망이 없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종계를 감축하고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의지도 절실하다. 또한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 좁디좁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드넓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전환도 필요하다.

이제는 육계산업 전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고 轉禍爲福(전화위복)의 마음가짐으로 위기 속의 닭고기 산

업을 지켜 나가야만 육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과 상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양계산업은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우스개소리를 들어왔다. 계육협회, 양계협회, 토종닭협회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상황에 협회별 각자의 주장은 힘이 실리기 힘들다. 정부 지원도 대가축이 중심이 된 반면 소가축은 '서자' 취급을 받는데도 '한 지붕 세 가족'의 역할이 컸다.

어찌됐든 자조금사업을 통해 세 가족이 한 지붕 울타리로 들어온 만큼 위기에 놓인 양계산업이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상생'해야 할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이 위기에 놓인 양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해법이다. 